

Youngeun News

동행

10월

2025년 470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color

2025 영은, 색을 입히다



“조심”

유혹이 많은 세상
조심할 것도 많습니다.
현재 이 순간
당신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17절) 

〈글 · 사진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 470호 / 2025. 10. 5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 행 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 집 인 김석진 장로

편집차장 김창원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편 집 서선이 김경원B 윤정림

기 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 자 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조심” / 서현이 기자
- 04 생명의 말씀
약속의 땅,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 / 이승구 담임목사
-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읽기) / 신요한 목사
- 08 동행
프랑스 떼제를 가다 / 김명희 권사
- 11 신앙의 유산
나의 신앙은 선교사들의 피흘림 덕분입니다 / 박룡규(청년부)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순교자들 / 김승준(청년부)
- 13 그리스도인의 향기
제 삶에 주인이신 하나님 / 김미정 집사(110구역)
- 14 웹진 동행
담임목사님과 함께 한 <올백구역예배> / 김명희 권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 이승훈 장로
- 16 영은소식
고(故) 김찬규 은퇴장로 교회장(敎會葬) / 홍석인 교사
고등부, 강남협의회 성경교사를 마치고 / 홍석인 교사(고등부)
우리 기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 장진아 권사
- 19 Color & 찬양
갈렘남성합창단 / 김우철 장로
샬롬남성중창단 / 구자민 안수집사
엘림여성중창단 / 박미리 권사
- 22 슬기로운 교회생활
교회언어 바로잡기 / 최광주 목사
- 23 빠딱하게
AI에는 없는 것 / 이숙경 기자
- 24 교회안내
마라나타 정기공연

2025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 (신명기 4:1)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무대입니다. 순종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도리어 시험과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담대히 들어가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들어가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신 4:1)

약속의 땅이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라”(신 4:2)

‘가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꿈이나 환상, 내 생각을 덧붙이면 말씀의 본질이 왜곡됩니다. ‘가감’의 또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은 달콤할 때도 있지만 약처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편식하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럴 때에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질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가감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경고를 자기 생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말

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약화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서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4~5)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면 순수한 복음이 흐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일 때에만, 약속의 땅인 우리의 삶의 터전이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가 됩니다.

2) 시행착오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도되”(신 4:3)

‘바알브올’은 ‘브올이란 곳에서 섬기던 바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싯딤에 머물 때였습니다. 모압의 여자들이 길가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사

람들을 유혹하자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사에 참여하고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브올을 섬겼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이만 사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훈련을 거치며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유혹에 순식간에 무너져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랜 훈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이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언급하면서 넘어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밟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대상 15:13)

하나님께서 올법을 통해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쓰라린 시행착오를 통해 교훈을 깨달은 다윗은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합니다(대상 15:15).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모든 백성이 기쁨에 넘쳐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시행착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혹에 지고, 말씀을 외면했던 자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를 덮어두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길이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말씀 앞에 세울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약속의 땅처럼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3) 붙어 있어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신 4:4)

‘붙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끈질기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것, 곧 ‘생명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줄을 붙잡듯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상숭배의 유혹, 불평의 유혹, 세상의 달콤한 제안들이 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기회가 되면 완전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방으로 흔들

리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더 세게 붙들듯, 인생의 흔들림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현실도 약속의 땅처럼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 약속의 땅에서 순종의 복을 누리십시오

약속의 땅은 정복해야 할 공간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이라는 무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말씀의 백성’으로 굳게 서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말씀의 백성’으로 굳게 서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 | 신요한 목사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읽기)

렉시오 디비나란

라틴어로 ‘렉시오’는 – 읽다, ‘디비나’는 – 거룩한 이라는 뜻으로 거룩한 읽기, 영적 독서라고 볼 수 있다. 고대 교회에서부터 사용되던 성경 읽기 방법으로 구약의 묵상 전통(신 6:6~9, 시 1:2, 19:14)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성경통독, 말씀묵상(QT), 성경공부,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서는 낭독, 봉독, 교독 등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필사나 성경 암송등이 있다. 렉시오 디비나는 전통적으로 체계화 되어 온 방법으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말씀을 깊이 읽는 성경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적

렉시오 디비나의 목적은 정확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말씀을 통한 진정한 나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깊이 있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읽으시는 과정이고 영적 성숙과 훈련의 과정이다.

방법

들어가기 – (상차리기)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다. 말씀을 준비한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 다른 걱정과 생각들은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

1. 렉시오(Lectio, 읽기) – (음식을 입에 넣기)

말씀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마음을 열고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다.

2. 메디타시오(Meditatio, 묵상하기) – (입에 넣은 음식을 음미)

이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단어에 주목한다. 그 말씀이 왜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차분하게 묵상한다.

3. 오라시오(Oratio, 기도하기) – (음식을 삼켜 위로 내려 보내기)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귀를 기울인다.

4. 컨TEMPL라시오(Contemplatio, 바라보기, 관상)

이제 침묵 가운데 고요히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른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

나가기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고요히 감사 기도를 드린다.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나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 간직한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드리며 묵상을 마무리한다. 

프랑스 떼제를 가다 - 예수를 찾아 온 젊은이들 -

글 | 김명희 권사

■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몰려온다고?



곳곳에 앉아 오후 티타임을 즐기는 젊은이들

올해 7월 말, 나는 프랑스 동부 작은 시골 마을 떼제(Taizé)에 있는 떼제 공동체(Taizé Community)를 친구와 방문했다. 오래전부터 ‘꼭 가리라’ 마음먹었던 꿈이 이뤄진 것이다. 내가 떼제에 간 것은 매년 수십만, 매주 수천 명의 젊은이가 떼제로 몰려온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내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싶었다.

떼제로 가는 길은 초행이라 긴장됐다. 우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 리옹을 거쳐 마콩에 도착했다. 마콩에서 1박 한 후 아침 일찍 떼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름다운 프랑스 시골 풍경을 감상하며 구불구불 달리다 보니 어느덧 떼제 공동체 입구에 도착했다. 오전 11시, 떼제 경내는 한산했다. 있어야 할 ‘수천 명의 젊은이’가 보이지 않았다. 접수처도 문이 닫혀 있었다. 알고 보니 모두 아침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어서 정오 기도를 위해 떼제 안에 있는 화해교회에 모여 있었다. 기도를 마치자 수많은 젊은이가 배식 장소로 모여

들었다. 우리도 그 젊은이들 틈에 끼여 식판을 받아들었다. 식판엔 접시에 담은 밥(?)과 빨간 공기 그리고 숟가락뿐이었다. 친구와 나는 꿀맛 같은 식사를 하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 이렇게 나의 떼제 체험은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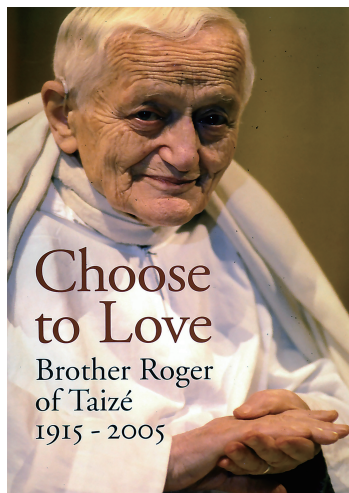


떼제 배식시간(떼제 상징인 접시와 빨간공기)

떼제 공동체는 일주일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떼제 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일 오후에 입소해서 다음 주일 오후에 퇴소한다. 떼제에 머무는 동안 기도와 찬양, 성경공부와 봉사를 하게 된다. 떼제의 전 일정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꼭 일주일이 아니어도 가능한 날만큼 떼제에 머물 수 있다. 떼제 프로그램은 예수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주제로 일주일 동안 요일별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7일간 예수의 사역과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게 된다. 아침 10시 소그룹 성경공부와 하루 세 번 있는 ‘공동기도’(예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 내게 떼제 생활은 ‘예수 축제’ 같았다.

■ 개신교 신자 로제가 세운 떼제 공동체

떼제 공동체는 1940년 개신교 신자인 로제에 의해 창설된 초교파적 수도회다. 로제의 아버지는 스위스 개신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프랑스인이었다. 로제는 스위스로잔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신교 신학을 공부했으며, 1940년 8월 20일에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의 시골 마을 떼제에 정착했다. 거기서 그는 누나 쥘비예브와 친구 몇 명과 함께 나치를 피해 도망 다니는 유대인들과 나치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숨겨주었다.



떼제공동체 설립자 로제

초기에는 로제와 그를 도왔던 7명이 종신서원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20개국에서 온 100여 명이 넘는 초교파적 크리스천 형제들이 떼제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됐다. 이들은 재산을 공유하고, 독신을 지키며, 떼제 규칙에 따라 생활했다. 개신교 신자였던 로제가 창립한 떼제 공

이 일로 로제는 1944년까지 스위스에 피신해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떼제로 돌아온 로제는 전쟁고아들과 독일군 전쟁포로들을 돌봐주는 일을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1949년에 초교파 형제 수도회인 떼제 공동체를 설립하게 됐다.

동체는 현재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 성공회 등 초교파적인 기독교 수도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떼제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한다. 이 공동체는 어떤 후원물자와 후원금도 받지 않는다. 오로지 수도자들이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만 운영된다. 연중 몰려오는 수십만 명의 떼제 참여자들은 각자 경제적 여건에 맞게 소액의 참가비를 낸다. 이들을 위한 숙식과 모임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한다.

■ 모든 게 단순하고 소박하다

떼제는 하루에 세 번 공동기도 시간을 갖는다. 오전 8시와 12시 20분, 저녁 8시 20분이다. 이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젊은이들이 화해교회로 모여든다. 떼제에서는 기도가 곧 예배다. 떼제의 일정 중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친구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 저녁기도 모임에 갔다. 떼제 중앙에 있는 화해교회는 어떤 장식도 의자도 없는 넓은 예배공간으로 단순하고 소박하다. 강단도, 설교단도 없다. 예배당 정면 왼쪽에 성찬대와 오른쪽에 십자가가 전부다. 예배당 내부 앞쪽에는 작은 촛불이 오밀조밀 놓여 있다. 왼쪽 벽 쪽에는 작은 파이프오르간이 있다. 공동기도가 시작되면 모두가 바닥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다. 80여 명의 떼제 수사들은 예배당 중앙에 3~4명씩 일렬로 앉는다. 화해교회에 모인 수천 명 모두가 자못 진지하다.



떼제 화해교회 공동기도: 흰 전례복의 수사들과 회중

한 시간 정도 진행되는 공동기도는 단순하다. 떼제 찬양을 여러 곡 부른 후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을 각국어로 여러 명의 수사가 낭독한다. 그리고 다시 찬양을 반복한다. 떼제 노래는 짧고 단순하다. 찬양에 이어 침묵기도를 한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참으로 단순한 형식의 예배다. 특별히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찬양이었다. 각국어로 부르는 떼제 찬양은 마치 웅장한 천사들의 합창 같았다. 모두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화음에 맞춰 찬양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와 친구는 회중의 찬양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됐다.

■ 교회의 미래를 만나다

화해교회의 하루 세 번의 ‘공동기도’는 세계 젊은이가 떼제를 찾는 중요한 이유다. 떼제의 생활은 공동기도를 포함해 모든 게 단순하고 소박하다. 딱딱한 빵에 막대 초콜렛 2개를 끼워 먹는 단순한 아침 식사도 모두가 즐겁다. 접시에 배식하는 소박한 식사도 미술랭별 5개 특식보다 모두를 더 행복하게 한다.



떼제 청년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떼제 참석자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인데, 이들은 떼제의 단순함과 소박함에 환호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예배당보다, 장엄한 예배보다, 떼제의 소박한 예배가 더 은혜가 된다. 단순한 식사와 불편한 잠자리, 화장실 청소와 설거지가 그들을 더 즐겁게 한다. 나는 몇 명에게 물어봤다. “여기에 온 이유가 뭔가요?” 단순한 기도와 찬양, 소박한 일과와 식사, 봉사와 나눔을 통한 친교가 좋아서라고 답한다. 그들은 소박한 떼제에서 소박하게 살았던 예수를 만나고 있었다.

누가 말했다. 젊은이들이 없는 텅 빈 유럽의 교회가 걱정된다고. 한국교회도 젊은이들이 줄고 있어 큰일이라고. 나는 이번 여름에 떼제 공동체에서 ‘교회의 미래’를 만났다. 예수를 찾아온 수많은 젊은이가 교회의 미래다. 그들이 있기에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신앙의 유산 : 교회역사탐방

나의 신앙은 선교사들의 피흘림 덕분입니다

글 | 곽룡규 (청년부)

청년부 7명은 8월 29~30일, 1박 2일로 영은문화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교회역사탐방>의 일환으로 강원도 철원과 양양을 다녀왔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당일 아침까지도 마음이 분주했으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는 두려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구, 철원제일교회 터에서 가이드 이상욱 목사(중앙)와 함께 한 영은 청년부(왼쪽 두 번째 : 곽룡규)

이번 역사 탐방을 통하여 가장 어렵고 어두웠던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열하게 도전했던 선교사들의 피흘림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과거 신앙의 선배님들의 피와 눈물 덕분이라는 감사의 고백이 교회를 탐방할 때마다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선교사들의 피흘림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원장흥교회 서기훈 목사 순교 기념비 방문
가이드 : 장흥교회 한찬희 담임목사(오른쪽)

이제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소년부에서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데, 소년부 교사를 하며 느낀 점은 아이들이 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저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길 원합니다.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순교자들

글 | 김승준 (청년부)



양양감리교회에서 4명의 순교자를 만나다(중앙, 가이드 최해순 목사)
김승준(왼쪽에서 두번째)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한일서 3:16)”

한국 땅에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이웃과 민족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통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철원 제일 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던 강종근 목사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

랑을 전하다가 일제에 잡혀갑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난을 받았는데, 신사에 한 번만 절하면 풀어주겠다는 소리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중에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합니다.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나를 구타하고 구속한 이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결국, 그는 1942년 6월 3일에 신사참배에 반대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후 우리나라는 또 다른 아픔을 맞이합니다. 바로 분단과 전쟁이라는 아픔입니다. 한 형제가 서로를 향해 미움과

악의를 토해내던 때, 장흥 교회의 서기훈 목사님은 서로 사랑함을 전합니다. 장흥 교회의 많은 사람은 6.25 전쟁 이전, 공산당에 의하여 죽임과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장흥 교회의 청년들은 그들을 향한 반감이 가득했습니다. 분단 전쟁이 시작되고 공산군이 후퇴할 때, 교회의 청년들은 남아있던 잔당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로로 삼았고 일부는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출타 중이던 서기훈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예수 사랑을 가르쳤지, 원수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목사님의 말에 청년들은 회개했고 포로로 잡은 모두를 풀어주었습니다. 원수 맺던 것이 서로를 향한 용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글 | 김미정 집사(110구역)

제 삶에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결혼 후 이곳 양평동으로 이사를 온 후 영은교회에 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출석, 2010년에 등록을 하고 영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 정지훈 성도와 아들 예훈이(고2)가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 후 결혼전까지 디자인 관련 일들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은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과 새가족 양육을 하며 신앙생활에 훈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배경에는 친정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형제들의 어린날부터 어머니께서는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저희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땐 어렸던지라 저는 어머니 말씀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시절에 저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때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신앙생활에 보다 매진했습니다.

영은교회에서 저는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제가 훈련자로 봉사하면서 여러 일들이 저를 통해 주님께 전해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훈련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때가 많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때마다 더 열심히 제 손을 보태곤 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기에 힘이 납니다. 물론 제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제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위

로하심과 친절 가족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려움이 닥쳐올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힘을 냅니다.

하나님!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을 예전에는 말씀의 이유를 찾으려 애썼던 때가 있습니다. 그저 믿고 맡기면 되는 것을.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며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하는 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전도폭발 훈련때에는 시간을 쪼개어 틈을 이용합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일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깨달았기에 매사 피곤치 않고 기쁩니다. 가정과 가족과 나의 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지난 날 시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을때 어찌할 바를 몰라 애쓰는 저를 찾아주신 하나님. 어린 날 말씀의 본이 되어주신 친정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씀과 생활 속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저는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바쁘고 힘든 삶속에서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게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웹진동행 : 9월 핫클릭

- 304구역 & 317구역 - 담임목사님과 함께 한 <올백구역예배>



글 | 김명희 권사(317구역 반장)



304 & 317구역 올백구역예배, 예배 후 식사 나눔(새가족실)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4구역과 317구역의 <올백구역예배>가 교회 2층 새가족실에서 있었다. 두 구역이 연합해 드린 올백구역예배에는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3교구 담당 신요한 목사님 그리고 7명의 구역원이 함께했다.

오전 시간이라 많은 구역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기 소개와 예배, 식사로 이어지는 한 시간 반 동안 어느덧 모두가 한 가족이 됐다.

<올백구역예배>는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가정의 심방을 목적으로 한 <올백심방>에 이어서 모든 구역이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함께 올백구역예배를 드림으로 구역예배를 회복하고 구역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올백구역예배>는 2023년부터 시작해 3년째 시행 중이다. 6개 교구 총 154구역(지방, 해외구역 포함) 가운데 9월 현재 70구역 정도가 <올백구역예배>에 참여

했다.

9월 18일, 304구역과 317구역의 구역원들은 담임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설렘으로 <올백구역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자기소개였지만, 그 속엔 각자의 간증이 녹아있었다. 이어서 구역예배를 드렸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부른 후 구역장의 기도가 있었고, 디모테전서 6장 11~20절의 말씀(“하나님의 사람이 갖추는 덕목”)을 돌아가며 읽었다. 이후 각자 성경 본문을 다시 읽으며 “도전, 상황, 변화”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묵상 후 “도→상→변” 순서대로 각자 느낀 바를 이야기했다. 담임목사님부터 시작한 “도·상·변” 말씀 나눔 후, 적용 질문 두 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승구 목사님은 구역원들이 함께한 구역예배를 모범 삼아 향후 각 구역이 가능한 여건 하에서 구역예배를 드리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오늘날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구역예배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럴수록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가 내 삶과 신앙생활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 | 이승훈 장로
(영은교회 남선교회 협의회 회장)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제101주년 기념 전국대회 참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창립 101주년을 기념하는 전국대회가 2025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되었다. 전국대회가 101주년을 맞이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선교 100년”이라는 표어로 과거의 100년 동안 놀랍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렸다. 그리고 101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 우리의 선교 사명을 재인식하는 영적 전환점이 되는 남선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중경 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하여 다락방에서 시작한 선교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선교회 회원들의 건강이 중요하므로 “백두산!(백 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나아가자!”라고 외쳤다. 전국대회 참가를 위하여 먼길 오느라 수고한 남선교회 회원들을 격려하며 “다락방에 모인 선교의 주역들”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지는 익투스 찬양단의 <오직 예수> 외 5곡 마무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힘차게 찬양하였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 특강에는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선교전략을 세우고 있는 인사이트컨설팅의 양성길 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양 대표는 SNS를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 새로이 대두되는 선교의 전환점으로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AI를 잘 활용하면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영은교회도 AI를 활용하여 선교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새벽기도회에서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세대’에게 복음 전하기, 선교지 보고에서는 러시아, 북한, 인도, 필리핀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선교지 현황을 알게 되었다.

우리 영은교회 남선교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3남선교회까지 18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영등포노회에서는 총 76명이 참석하여 전국남선교회 노회 단위로 세 번째로 많이 참석해 남선교회전국연합회에서 부상을 받았다.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강의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았다.

고(故) 김찬규 은퇴장로 교회장(敎會葬)



고(故) 김찬규 은퇴장로

지난 9월 27일 토요일, 고(故) 김찬규 은퇴장로의 교회장(敎會葬)이었다. 고(故) 김찬규 은퇴장로는 1928년 12월 10일 평안북도 의주군 송장면에서 출생하였으며, 1956년에 고(故) 이팔순 은퇴권사와 결혼하고, 1960년 4월 영은교회 창립

교인으로 등록하였으며, 1978년 4월 23일 안수집사로 임직하고, 1980년 4월 27일 장로 장립 후 사랑과 헌신으로 1995년까지 봉사하다 은퇴하고, 은퇴장로로 교회를 섬기던 중 2025년 9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고(故) 김찬규 은퇴장로와 고(故) 이팔순 은퇴권사는 슬하에 성천, 병옥, 영옥, 혜옥, 명옥 1남 4녀를 두었다. 다음은 이정규 은퇴장로의 조사(弔詞)이다.

조사 (弔詞)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찬규 장로님!

백수를 눈앞에 두시고, 약 1년 전, 설악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나오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투병하셨습니다. 끝내 회복하시지 못하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품으로 가신 장로님, 장로님은 의지도 강하시고 건강하셔서, 백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문병 갔을 때에 맑은 정신으로 반기면서 대접 못해서 아쉬워 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장로님은 우리교회 창립교인으로 오래동안 여러 부서에서 성실히 섬기셨습니다. 조용하신 목소리로 섬기시면서, 아직도 건강하시다 하시며 은퇴를 아쉬워하시던 장로님이 그립습니다.

장로님은 재주가 많으셨습니다. 풍금과 피아노를 손수 치시며 찬송하시고, 아코디언, 하모니카, 피리, 대금으로 교회행사에서 연주하시던 장로님의 그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장로님 대단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가정의 복도 누리셨습니다. 먼저 보내신 애교

많은 권사님, 1남 4녀로 모두들 주님 안에서 사시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시며, 신앙으로 성경말씀을 읽어 주시며,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니, 거역하며 살 수 없었다. 꿈에서 보았다 하시면서 칭찬과 질책과 격려를 해 주셨던 분이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저희들은 장로님께서 몸소 실천해 오신 신앙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며, 이웃사랑과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우리들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장로님! 이제는 주님 곁으로 가셔서 사랑했던 권사님도 만나시고, 저희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편히 쉬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9월 27일

이정규 은퇴장로

고등부, 강남협의회 성경고사를 마치고



글 | 홍석인 교사(고등부)

편집자주 : 지난 9월 13일 토요일, 시흥교회에서 열린 제19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성경고사대회에서 우리 교회 고등부가 단체전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1년마다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우승기를 우리 교회가 영구 소장하게 되었다.

이날 수상자는 단체전 대상(곽영규, 김윤슬, 김하영, 한윤지), 단체전 금상(박민서, 표세울, 하예지, 황현준), 개인전 1등 이혜빈, 2등 한윤지, 3등 김윤슬, 장려상 김하영, 한예지이며, 홍석인 고등부 교사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홍석인 지도교사의 소감문이다.



2025년 9월 13일, 강남협의회 성경고사대회에 우리 영은 고등부에서는 개인전 13명, 단체전 3팀, 총 13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든 공부와 입시 속에서, 크리스천 고등학생으로서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 모인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모인 후 약 한 달간, 주일과 토요일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틈틈이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성경고사 대회 날이 되었고, 다 같이 모여 마무리 공부 후 대회가 열리는 시흥교회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시험 일정이 잘 마무리되었고, 채점이 진행되는 동안 찬양/율동 등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노래도 부르며 영은교회 고등부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단체전 대상/금상, 개인전 1, 2, 3등, 장려상 2명, 지도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전에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함께 모이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0월 18일에 우리 영은교회에서 개최되는 전국연합회 성경고사대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글 | 장진아 권사



화요직장인예배 봉사자 야외예배

지난 9월 6일 화요 직장인 예배 봉사자들이 과천 서울대공원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야외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지만 늦더위를 피해 가볍게 걷기에는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최근 직장인 예배에는 20여 명의 봉사자 포함 120여 명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이들, 아직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지만 동료의 손에 이끌려 나온 미래의 새 가족들, 점심 맛집을 찾아 멀리서 찾아오신 한 끼가 소중한 분들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봉사자들은 아침 경건회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 후 예배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피드백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다.”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영은교회에 감사를 전한다.” “찬양하는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 “점심 식사가 정말 맛있다” “안내하시는 분들의 미소에 마음이 밝아진다” “화요 일은 직장인 예배에 가려고 오전에 열일합니다!” 직장인 예배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기대를 넘어 우리의 기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야외예배는 올 한 해 쉽다 없이 달려온 봉사자들에게 잠깐의 쉼이 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요 직장인 예배가 지역사회의 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와 직장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color : 찬양

갈렙남성합창단



글 | 김우철 장로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33)

갈렙 남성합창단은 2018년 5월, 60세 이상의 남성 성도가 모여 창단(초대 단장 경흥국 은퇴장로)하여 매월 1,4주에 연습을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과 2024년 11월 두 번의 정기연주회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렸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원이 얼마나 모일지 지휘자 반주자는 어느 분이 맡아 주실지 운영은 어떻게 할지 계획되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호산나 찬양대를 지휘하시던 오성환 집사님과 시온 찬양대 반주로 섬기시는 김수영 선생님께서 흔쾌히 지휘, 반주를 맡아 주셨고, 단원들도 처음부터 30명 정도가 모여 남성 합창 4개 파트가 구성되어 창단하고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여 공백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 다시 모여 2대 단장 이정규 은퇴장로를 중심으로 40여 명의 단원들이 2회 정기연주회를 드렸고 현재는 호산나 찬양대 이한주 지휘자를 2대 지휘자로 모시고 반주자 김수영 선생님과 두 분의 지도로 2026년 5월로 계획한 3회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 활동은 단원들의 단합과 교제를 위한 야외 예배를 매년 실시하며 올해는 11월 7일에 계획하고 있다.

창단 이후 지금까지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마음 하나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이른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된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어렵

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이다. 더 많은 60세 이상의 남성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기를 기도한다. 단원의 자격은 60세 이상이면 된다. 찬양대나 합창단의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디션도 없다. 찬양할 마음만 있으면 합격이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시편 68:19)



샬롬남성중창단



글 | 구자민 안수집사(단장)



우리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함으로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영은교회 음영부에 속해 있는 특별 단체 영은교회 남성 중창단으로 오랜 기간 씬 없이 달려오며 찬양으로 평안을 전한 샬롬중창단입니다.

그동안 많은 남자 성도들의 찬양 하모니를 이어오고 있는 샬롬중창단은 2025년 새롭게 재정비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잠시 멈춤으로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원도 충원하여 다시 마음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한목소리로 웃으며 찬양하는 샬롬중창단은 내년 정기 연주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마무리된 단원 모집을 통해 새로운 단원까지 충원되어 현재 15명의 단원, 하정태 지휘자, 이희승 반주자와 함께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한분만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엘림여성중창단



글 | 박미리 권사



엘림여성중창단은 단장 김영순 권사, 조한나 지휘자, 황지선 반주자와 단장을 포함한 11명의 여성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엘림여성중창단은 창단된 지 20년이 넘는 전통 있는 단체이고, 다양한 찬양을 골고루 선보이며 영은교회 찬양의 선두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단원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되어 2주마다 모여서 연습한다. 연습일이 주일이므로 직장 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2025년의 활동은 음영부 헌신예배, 여전도회 수련회 등에서의 특송 2회를 했고, 10월에는 2년 만에 교회에서 정기연주회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원들은 더 열심히 모이고 행

복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있다.

얼마 전에 특송 했을 때 성도님들이 “엘림여성중창단의 소리가 계속 더 좋아지고 있다. 두 곡 해도 좋았을 것이다.”라고 해주신 말씀은 단원들께 큰 힘이 되고 있다.

조한나 지휘자께 2026년의 계획을 들어보면, 5월 가정의 달에 단원들의 가족들과의 협연을 계획 중이라고 하신다.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의 연주회가 될 것 같다. 단원이 몇 명 더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10월

26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정기연주회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찬양으로 만나기를 약속드립니다.

기도제목

- * 좋은 목소리와 찬양의 열정을 가진 단원들의 확충을 위해
- * 이번 정기연주회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감사하며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교회언어 바로잡기



글 | 최광주 목사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 채워지고 몸과 마음이 살찌는 풍성한 한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통해, 교회 생활에 도움과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배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찬송, 기도, 봉독, 설교, 봉헌, 축도 등은 그 어느 것이 주가 되고 부가 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찬양대의 찬양에 대하여 ‘예배를 돕는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기보다는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로 고쳐 은혜를 하나님께 따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구약시대 제사 시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진 흠향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향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제사 시에는 쓰일 수 있는 말이지만 오늘날 예배 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소서’(×) →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거두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가져가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거두소서’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 ‘우리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지존하신 최상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인칭으로 교회를 수식할 경우 낮추어 표현하는 ‘저희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기독교용어연구위원회)

AI에는 없는 것

글 | 이숙경 기자

AI가 급부상하면서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진 면도 있는 반면, AI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AI가 자아를 가지게 되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SF적인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AI탓에 직업을 잃거나 위기에 직면한 이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나, 세상에나.

AI가 대두되기 전에는 단순 노동은 위기에 빠질지언정 예술 분야의 창작자들은 살아남으리라 예상했지만, 이제 웬 걸. 실제로는 일러스트, 영상, 글 등의 창작자들이 가장 먼저 위기에 빠졌다. 당장 일본에서는 AI로 쓴 글의 공모전 출품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모 사진 공모전은 당선작이 AI를 사용한 작품이었던지라 일대 소란이 났다. 당장 대기업들이 나서서 TV에서, 거리의 전단지에서, 인터넷에서 AI를 활용한 광고를 앞다투어 내고 있다.

남의 밥벌이가 문제가 아니라, AI에게 소셜 창작을 빼앗기게 생긴 내 밥벌이가 제일 문제다.

이 글을 읽고 ‘그래요, 걱정이 크겠군요…….’하고 생각하셨을 목사님들께도 안심하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23년부터 AI가 작성한 설교문으로 예배를 맡기는 실험 사례가 꽤 있는데, AI임을 밝히지 않았을 때 많은 교인들이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긴 하다. AI설교문은 아주 잘 만든 문장과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었겠으나, 교인들의 평가는 ‘감정적 울림과 공감에 부족하다’는 평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AI로 만든 일러스트 광고나 쇼츠 영상은, 분명 진짜와 다를바 없이 정교함에도 어색하고 껄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AI의 기본 원리는 ‘짜깁기’이다.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레퍼런스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한다. 전하고자 하는 것 없이, 주제에 맞추어 콜라주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소 낭만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엔 ‘마음’이 없다. ‘열정’도, ‘의욕’도, ‘진심’도 없다. 수치를 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오히려 인간이 손으로 빚은 것보다 실수가 없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완벽함이 텅 빈 느낌이 든다.

성경 속 가인의 제사가 그러했을까, 홀로 생각해본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늘 의문이었다. 성경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 4:3)’ 라고만 나와있지, 그의 제사가 부족했다고는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릴 땐 ‘하나님께서 채식을 싫어하시나?’하는 엉뚱한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

그의 제사는 완벽했을 것이다. 마치 AI가 만든 예술 작품처럼. 내 제사가 매우 완벽하고 훌륭하니, 하나님도 이 건 받지 않으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 거절당한 것이 그렇게 화가 났으리라.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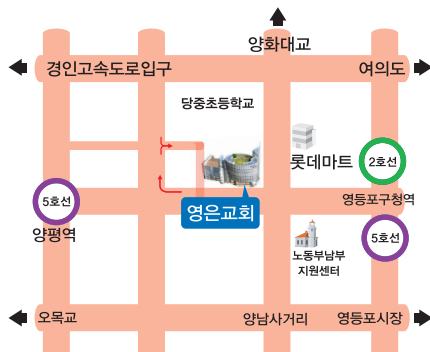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 거기에 정말 마음이 있다. 진심이, 열정이, 열심이, 마음이 담겨 있을까. 외식하듯 예배드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아벨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허남기
 담임목사 이승구
 부목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육목사 전수현
 전도사 장미애 김영락 김찬영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황금성 황예찬 손예지
 정희수
 파송선교사 구용희 백현이
 협동목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